

# 5 깔뱅의 “삼위일체적 함께하심”의 원리



백충현 박사 / 장로회신학대학교, 조직신학

## 1. 서 론

삼위일체론은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까지 암흑기를 맞이하였으나, 20세기부터 오늘날까지의 현대 조직신학에서는 새롭게 재발견되고 활발하게 논의되어 오고 있다. 크리스토퍼 슈뵈벨은 이러한 현대적 재발견과 논의들을 “삼위일체 신학의 르네상스 또는 부흥”(the renaissance or revival of Trinitarian theology)이라고 일컫고 있으며,<sup>1)</sup> 데이비드 커닝햄도 이 점을 확증해 준다.<sup>2)</sup> 삼위일체 신학의 현대적 부흥은 칼 바

1) Christopher Schwöbel, “The Renaissance of Trinitarian Theology : Reasons, Problems and Tasks,” in *Trinitarian Theology Today : Essays on Divine Being and Act*, ed. Christopher Schwöbel(Edinburgh : T & T Clark, 1995), 1.

2) David S. Cunningham, *These Three Are One : The Practice of Trinitarian Theology*(Oxford : Blackwell Publishers, 1998), 94. 이후로 *Practice*로 표기함.

르트와 칼 라너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며, 블라디미르 로스키와 잔 지지 올라스와 같은 동방교회 신학자들에 의해 촉진되었고, 위르겐 폴트만, 볼프하르트 판넨베르그, 로버트 젠슨에 의해 발전되었고, 캐서린 모우리 라쿠냐, 레오나르도 보프 등의 신학자들에 의하여 확장되었다.<sup>3)</sup>

이 논문은 현대신학의 삼위일체 신학의 부흥을 염두에 두면서, 깔뱅의 삼위일체론을 검토한다. 깔뱅의 삼위일체론에 관하여 국내외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행해져 왔는데, 대체적으로 삼위일체와 관련된 일반적인 주제들이 다루어져 왔다.<sup>4)</sup> 이 논문은 범위를 한정하여, 이 논문에서 명명한 “깔뱅의 삼위일체적 함께하심의 원리”(Calvin's Principle of Triune Togetherness)를 탐구한다.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성서적 증언

3) Cunningham, *Practice*, iii–iv.

4) 깔뱅의 삼위일체론과 관련된 최근의 국내외 대표적인 연구들을 몇몇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유해무, “삼위일체론,” 「칼빈신학해설」(서울 : 기독교서회, 1998), 133–153 ; 유해무, “삼위일체론 : 동방신학과 관련하여,” 「칼빈신학과 목회」(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99), 7–31 ; 김재성, “칼빈의 삼위일체론 : 그 형성과 독특성과 중요성,” 「칼빈연구(창간호)」(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31–69 ; 최윤배, 박계순, “깔뱅의 삼위일체론적 성령론,” 「칼빈연구(제3집)」(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2005) ; 박찬호, “칼빈의 삼위일체론 : 제랄드브레이의 「신론」을 중심으로,” (요한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제3분과 <칼빈신학의 주제들> 발표논문, 2009) ; 박경수, “삼위일체론에 대한 칼뱅의 공헌,” 「교회의 신학자 칼뱅」(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2009), 169–189. Thomas, F. Torrance, “Toward an Ecumenical Consensus on the Trinity,” *Theologische Zeitschrift*(Basel : Friedrich Reinhardt Verlag, 1975). John Bolt, “The Trinity as a Unifying Theme in Reformed Thought,” *Calvin Theological Journal* 22(April, 1987) : 91–104 ; Thomas F. Torrance, “Calvin's Doctrine of the Trinity,” *Calvin Theological Journal* Vol. 25, No. 2(November 1990) ; Gerald Lewis Bray, *The Doctrine of God(Contours of Christian Theology)*(Leicester : IV P, 1993) ; Torrance, Thomas F. *Trinitarian Perspectives : Toward Doctrinal Agreement*(Edinburgh : T & T Clark, 1994) ; Philip Walker Butin, *Revelation, Redemption, and Response : Calvin's Trinitarian Understanding of the Divine-Human Relationship*(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R. Scott Clark, “The Catholic-Calvinist Trinitarianism of Caspar Olevian,”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61(1999) : 15–39 ; Charles Partee, *The Theology of John Calvin*(Louisville :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8).

에 철저히 근거하면서 삼위일체론을 전개한 깔뱅에게 “삼위일체적 함께하심”의 원리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존재 하심”과 “함께 사역하심”을, 또는 “함께 있음”과 “함께 일함”을 의미하였다.<sup>5)</sup> 이 원리는 깔뱅이 삼위의 구별에 관하여 언급한 진술에서 나타나 있다. 이 진술은 본래 삼위 간의 구별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 진술이 내포하고 있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원리를 포착하여 다룬다.

이 논문은 깔뱅의 삼위일체적 함께하심의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세계창조에 관한 깔뱅의 논의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가 예언, 세례, 축도, 섭리와 같은 신학주제들 속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 다음으로 깔뱅의 삼위일체적 함께하심의 원리가 오늘날의 삼위일체 신학의 논의들에 미치는 함의들을 밝힌다. 이 논문은 깔뱅의 「기독교 강요」(최종판)를 중심으로 다루되 논의와 관련된 깔뱅의 주석들과 설교들을 함께 참고한다.

## 2. 본 론

### 1) 삼위일체적 함께하심의 원리

깔뱅은 「기독교 강요」(최종판)의 I 권 13장에서 성경에 철저히 근거하여 삼위일체론을 다룬다. 깔뱅은 18절에서 삼위 간의 구별을 논의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구별이 성경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고 그가 관찰하기 때문이며, 그러한 삼위 간의 구별을 묵과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삼위 간의 구별에 관하여 깔뱅은 다음과

5)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Baillie, John T. McNeill, and Henry P. Van Dusen, trans.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67), I, xiii, 18. 이후로는 *Inst*로 표기함.

같이 진술한다.

성경이 말하는 구별은 다음과 같다. 곧 성부는 일의 시초(beginning)가 되시고 만물의 기초(fountain)와 원천(wellspring)이 되시며, 성자는 지혜(wisdom)와 계획(counsel)이시며 만물을 질서 있게 배열(ordered dispensation)하시는 분이라고 하였으며, 그러나 성령에게는 그와 같은 모든 행동의 능력(power)과 효력(efficacy)이 돌려진다.<sup>6)</sup>

칼뱅의 진술의 본래의 의도가 삼위 간의 구별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이 진술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점을 내포하고 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일의 시초이고 성자 하나님께서 일의 계획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일의 효력이시기에,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위격의 동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어느 한 위격이 다른 두 위격의 역할들을 배제하면서 단독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각 위격이 연대 기적 시간순서로 교대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는 것도 아니다. 그 대신에 삼위 모두가 항상 함께 활동하신다. 삼위 모두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한다.

성부 하나님은 일의 시초와 기초와 원천으로서 참여하시며, 성자 하나님은 일의 지혜와 계획과 배열로서 참여하시며,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일의 능력과 효력으로서 참여하신다. 성부 하나님의 시초가 없이는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사역을 시작하실 수가 없다. 성자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성부 하나님의 기초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도 맹목적이 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효력이 없이는 성부 하나님의 원천도

6)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Baillie, John T. McNeill, and Henry P. Van Dusen, trans.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67), I, xiii, 18. 이후로는 *Inst.*로 표기함.

성자 하나님의 배열도 공허하게 된다.

그런 까닭에, 칼뱅의 위의 진술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항상 함께 사역하시며, 그리고 항상 함께 존재하심을 의미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항상 함께 있음과 항상 함께 일하심을, 함께 존재하심과 함께 사역하심을 필자는 이 논문에서 “칼뱅의 삼위일체적 함께하심의 원리”(Calvin's Principle of Triune Togetherness)라고 명명한다.

## 2) 삼위일체적 함께하심과 창조

이제는 칼뱅의 삼위일체적 함께하심의 원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대한 칼뱅의 논의들을 살펴보자. 창세기의 성경말씀을 근거로 칼뱅은 삼위의 함께 존재하심과 함께 사역하심에 주목한다. 성부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창조하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심과 함께 창조하셨다.

첫째, 칼뱅은 세계창조에서의 성령의 의미 있는 역할에 주목한다. 성령은 가만히 쉬고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혼돈한 물질을 둘보고 있었으며 창조된 세계를 지탱하고 계셨다.<sup>7)</sup> 칼뱅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성하시기 전에 세상은 뒤죽박죽인 물질이었음을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 그와 같은 혼돈의 물질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수적이다. …… 그 혼돈의 물질이 아무리 뒤죽박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비밀스런 효력에 의하여 안정케 되었다.<sup>8)</sup>

7) *Inst.*, I, xiii, 14.

8) John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Genesis* Vol. 1, trans. John King(Grand Rapids : W. 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48), 73–74. 이후로 *Genesis*로 표기함.

하나님의 비밀스런 영감인 성령 하나님의 계시기에 혼돈의 물질은 분해되어 버리지 않았다.<sup>9)</sup>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주의 아름다움과 그 보존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 덕분이다. 성령 하나님은 만물을 지탱하며 자라게 하며 활력을 불어넣는다. 성령 하나님은 자신의 에너지를 만물 속에 주입하며, 만물에게 본성과 생명과 운동을 불어넣는다.<sup>10)</sup> 효력과 능력과 에너지와 생명으로서의 성령 하나님의 역할에 대한 이해는 시편 104 : 29~30, 즉 “주께서 낮을 숨기신즉 그들이 펼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와 같은 성경 구절들에 의하여 지지를 받는다고 깔뱅은 주장한다.

둘째, 깔뱅은 창세기 1 : 3의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구절을 설명하면서, 여기에서 성자 하나님의 공존과 공역을 밝혀낸다. 성령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성자 하나님도 창조 시에 가만히 있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자 하나님에 의하여 만물이 생성되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지혜이며, 이러한 지혜가 없이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신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깔뱅이 창조에서의 효력과 효과를 하나님의 말씀에게도 돌린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동일한 효력에 의하여 시작되었으며 그러한 지혜의 효과는 빛의 창조 시에 분명하게 되었다고 깔뱅은 설명한다.<sup>11)</sup> 성자 하나님의 역할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요한복음 1 : 3~4,<sup>12)</sup> 히브리서 1 : 1~3,<sup>13)</sup> 요한복음 5 : 17<sup>14)</sup>

9) Calvin, *Genesis*, 74.

10) *Inst.*, I, xiii, 14.

11) Calvin, *Genesis*, 74–75.

12) John Calvin,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Vol. 1, trans. William Pringle(Edinburgh : The Edinburgh Printing Company, 1847), 30. 이후로 *John*으로 표기함.

13)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Hebrews*, trans. John Owen(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89), 34. 이후로 *Hebrews*로 표기함.

14) *Inst.*, I, xiii, 7.

과 같은 성경 구절들에 의하여 지지를 받는다고 깔뱅은 주장한다. 특히 요한복음 5 : 17을 근거로,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셨다는 점에 깔뱅은 주목한다. 그래서 깔뱅은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발하셔서 창조 시에 이 말씀이 참여하였으며 그러기에 창조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양자에게 공통된 사역이었다고 결론을 내린다.<sup>15)</sup> 그리고 요한복음 1 : 4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라는 구절을 주석하면서, 깔뱅은 요한복음 기자가 창조된 만물의 보존을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돌린다고 해석한다. 성부 하나님이 만물에 생명을 주시되, 영원하신 말씀인 성자 하나님에 의하여 주신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깔뱅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고 말한다.<sup>16)</sup>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고 함께 만물의 원인이 되셨기 때문이다.<sup>17)</sup>

요약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창조 시에 함께 존재하시고 함께 사역하셨다. 성부는 원천으로, 성자는 지혜로, 그리고 성령은 능력과 효력으로 일하셨다. 세 위격이 협력적으로 일함으로써 창조를 이룩하셨다. 각 위격은 창조 시에 자신의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셨다. 깔뱅은 가끔 이러한 역할들을 상호 간에 교환적으로 돌리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삼위의 역할과 참여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점을 아우구스티누스도 인정하였다. 창조 시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을 논의하면서, 삼위는 세 가지 질문들, 즉 “누가 창조하였는가? 어떤 수단으로 창조하였는가? 왜 창조하였는가?” 각각에 대응한다고 간주하였다. 데이비드 커닝햄은 그 세 가지 질문들은 창조자, 창조수단, 창조목적이라고 밝힌다. 그러기에 아우구스티누스는

15) *Inst.*, I, xiii, 7.

16) Calvin, *John*, 31–32.

17) *Inst.*, I, xiii, 7.

“삼위일체 전부는 그의 활동들 속에서 우리에게 드러난다”(the whole Trinity is revealed to us in its works)<sup>18)</sup>고 진술하였다. 차이점이 있다면, 즉 아우구스티누스에 비교하자면 깔뱅의 삼위 간 역할들의 구별은 훨씬 더 융통적으로 상호간 교환된다는 점이다.

### 3) 삼위일체적 함께하심과 다른 사역들

창조 속에서 드러난 삼위일체적 함께하심의 원리의 관점으로, 이제 예언, 세례, 축도, 섭리에 관한 깔뱅의 논의들을 살펴보자. 깔뱅은 이 모든 것들은 삼위일체적 함께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이해한다.

첫째, 예언과 관련하여, 깔뱅은 이사야 48:16, 즉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라는 말씀을 근거로 성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파송하시되 동시에 성령 하나님을 파송하신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므로 예언은 결코 예언자들의 의지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예언자들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할 뿐이다. 예언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과 최고의 능력을 공유하며, 바로 이러한 공유로부터 하나님의 신적인 위엄이 빛난다고 이해한다.<sup>19)</sup> 그리고 모든 예언과 신탁의 말씀들이 영원하신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임을 깔뱅은 간과하지 않는다.<sup>20)</sup> 간단히 말하면, 성부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예언자들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신다. 이런 점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언자들의 예언 속에서 함께 존재하며 함께 활동하신다.

둘째, 마태복음 28:19에 따르면 세례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깔뱅은 이 세례문이 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가장 온전하게 드러난 하나님에 관한 가장 명확한 지식을 보여 준다고 주장한다. 즉,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신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생생하고 분명한 이미지인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신다. 동시에 성자 하나님은 성령의 온전한 광채로 세상을 밝히 비추어 주시며, 자신과 성령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자 하신다. 깔뱅은 세례문에 나타나 있는 삼위일체적 함께하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분명하게 언급된 이유들은 많이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세례의 효력이 경험되지 않기 때문이다. 세례는 성부 하나님께서 공로 없이 주시는 자비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외아들인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시키고자 하신다. 다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씻어 주시고 중생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혜택들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한 본질로 계시는 삼위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참되게 알려지지 않는다. 즉, 세례의 열매와 효력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성부 하나님은 그의 성자를 통하여 우리를 입양하여 주시며, 성령을 통하여 육신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며, 성령은 우리를 의로 새롭게 창조하신다.<sup>21)</sup>

이와 같이 깔뱅은 세례의 시행 속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존재하며 함께 사역하신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18) Cunningham, *Practice*, 94.

19) *Inst.*, I, xiii, 14.

20) *Inst.*, I, xiii, 7.

21) John Calvin, *Commentary on a Harmony of the Evangelists, Matthew, Mark, and Luke*, trans. William Pringle(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89), 387. 이후로 *Harmony*로 표기함.

셋째, 깔뱅은 고린도후서 13:14의 축도문에서도 삼위일체적 함께하심의 원리를 끄집어낸다. 깔뱅에 따르면,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바로 이러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데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중보자, 즉 성자 없이는 파악할 수 없다. 원인이 결과에 앞서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앞선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획득케 해 주는 원인으로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존귀케 하여 주신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가 주시는 모든 혜택들을 소유하게 된다. 그리므로 축도에서 우리는 삼위 모두의 활동이 필요하다. 즉, 축도는 삼위일체적 함께하심의 원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sup>22)</sup>

마지막으로, 섭리에 관한 깔뱅의 논의들을 살펴보자. 깔뱅의 1558년 논문인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에 대한 옹호”(*A Defence of the Secret Providence of God*)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섭리로써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창조 시에 만물의 조물주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의 영속적인 통치자이시다.<sup>23)</sup> 성부 하나님은 성자에 의하여 세계를 창조하시며, 성자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만물을 지탱한다. 떠받치는 성자의 역할이 없다면, 만물은 즉시라도 무가 되어 버린다.<sup>24)</sup>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자신이 모으고자 하시는 모든 이들을 성령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불러 주신다.<sup>25)</sup> 그러기에 때때로 우리의 삶 중에 성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확신이 없거나 성자 하

22) John Calvin, *Commentary on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Corinthians*, trans. John Pringle(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89), 403–404. 이후로 *Corinthians*로 표기함.

23) John Calvin, “A Defence of the Secret Providence of God,” in *Calvin’s Calvinism*, trans. Henry Cole(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0), 224. 이후로 “Defence”로 표기함.

24) Calvin, *Hebrews*, 37.

25) Calvin, “Defence,” 314.

나님이 지탱해 주신다는 확신이 없을 때에 조차도, 깔뱅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만을 죽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자를 통하여 명령하신 것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중생케 하시는 성령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사역하시기 때문이다.<sup>26)</sup> 이와 같이 볼 때에, 깔뱅은 삼위일체적 함께하심의 원리의 관점에서 섭리를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깔뱅의 삼위일체적 함께하심의 원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의 이해를 검토하였으며, 동일한 관점에서, 예언, 세례, 축도, 섭리와 같은 신학적 주제들에 대한 그의 이해를 살펴보았다. 요약하자면, 깔뱅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위와 같은 모든 사역들 속에서 함께 존재하시며 함께 활동하시며, 함께 있고 함께 일하시는 점에 주목하였다.

#### 4) 삼위일체적 열림의 원리

위에서 확인하였던 깔뱅의 삼위일체적 함께하심의 원리를 더 깊이 고찰하면, 여기에는 또다른 중요한 신학적 원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마태복음 3:13~17, 마가복음 1:9~11, 그리고 누가복음 3:21~23에 있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한 예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며,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소리가 들렸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sup>27)</sup> 깔뱅에 따르면, 하늘의 열림은 천상의 영광이 현현한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함께 존재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비록 이전부터 성령이 함께하셨더라도, 이제는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천상의

26) Calvin, “Defence,” 310–311.

27) Calvin, *Harmony*, 206.

소명에 관한 확신을 받으며, 그리고 곧 영적인 전투를 시작하기에 앞서 성령의 막대한 권능으로 옷 입게 된다.<sup>28)</sup>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공적인 등장의 사건 속에서, 성부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성자를 부르시고 세상으로 내어 주신다. 성자 하나님은 성령의 새로운 권능으로 옷 입으며 중보자의 직무를 담당하신다. 성령 하나님은 성자와 함께 존재 하시며 권능을 부여해 주신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사건 속에 삼위일체적 함께하심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깔뱅은 이러한 삼위일체적 함께하심의 사건을 주석하면서, 성령의 현현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던진다. 첫째, “이전에 그리스도에게 이미 거하였던 성령께서 왜 이 순간에 내려오셔서 임하셨는가?”이다. 여기에 대한 깔뱅의 대답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막대한 권능으로 옷 입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충분한 대답이 되지 못한다. 깔뱅은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우리와 같은 믿는 이들이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들이는지를 배우도록 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다.<sup>29)</sup>

둘째, “성령이 불의 형상이 아니라 비둘기 모양으로 나타났는가?”이다. 깔뱅은 이사야 42:3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지적하면서,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이 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상징한 것이라고 대답한다.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죄인들을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데, 예수님의 그러한 온유함을 보여 주시고자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 모습으로 임재하실 필요가 있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확증하는 목적이 있었다. 즉,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이 임한 것은 예수님을 위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아울러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다.<sup>30)</sup>

28) Calvin, *Harmony*, 203–204.

29) Calvin, *Harmony*, 203–204.

셋째, “그리스도의 공적인 등장의 사건에서 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는가?”이다. 이에 대하여, 깔뱅은 우리가 양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신뢰하기 위한 목적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대답하게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해설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이 사건은 우리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즉, 그리스도가 성자의 명칭으로서 우리에게 중보자로 나타나실 때에, 성부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심을 선언하기 위함이었다.<sup>31)</sup> 하늘로부터 들린 소리는 예수님의 신적인 소명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였다.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 하늘로부터 들린 소리는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표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함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세례를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장차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것임을 보여 주기 위함이었다.<sup>32)</sup>

위의 세 가지 점들을 고려하면, 예수님의 세례 사건 속에 드러난 삼위일체적 함께하심은 누구보다도 바로 우리를 위한 사건이다. 즉, 여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려 있고 개방되어 있음의 원리가, 즉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열림의 원리가 담겨 있다.

### 3. 결 론

이 논문의 본론에서는 깔뱅의 삼위일체적 함께하심의 원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의 논의를 검토하였으며, 그리고 동일한 관점에서, 예언, 세례, 축도, 설교와 같은 신학적 주제들에 대한 그의 이해를 고찰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

30) Calvin, *Harmony*, 204.

31) Calvin, *Harmony*, 206.

32) Calvin, *Harmony*, 202.

령 하나님은 위와 같은 모든 사역들 속에서 함께 존재하시며 함께 활동 하시며, 함께 있고 함께 일하신다. 이러한 삼위일체적 함께하심의 원리는 또 하나의 신학적으로 중요한 원리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삼위일체적 열림의 원리이다. 함께 있으시며 함께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들은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사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깔뱅의 삼위일체적 함께하심의 원리가 오늘날의 삼위일체적 신학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점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를 대략적으로 언급하되, 이에 대한 깊은 논의들은 추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첫째, 삼위일체 신학의 쟁점들 중의 하나는 하나님의 하나 됨을 강조하느냐, 아니면 세 위격을 강조하느냐에 관한 논쟁이다. 하나 됨을 강조하면 양태론적 모델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고, 세 위격을 강조하면 사회적 모델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 전자는 한 하나님임을 강조하면서 세 위격을 세 양태들 혹은 세 존재방식들로 이해한다. 반면에 후자는 세 위격의 동등함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세 위격들의 연합과 친교로서 이해한다.<sup>33)</sup> 완전히 도식화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서방교회는 전자의 경향을 보이며 동방교회는 후자의 경향을 보인다고 알려져 왔다.<sup>34)</sup>

그러나 논리적으로 양자택일의 문제와도 같아 보이는 이러한 쟁점에 대하여, 깔뱅은 이 둘 중의 어느 하나님의 입장에도 속하지 않는다. 깔뱅의 삼위일체적 함께하심의 원리는 이러한 쟁점에 대하여 절묘한 해답을 제공해 준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존재하셔서 한 하나님으로 계시되, 서로 분리된 세 하나님들로 존재

33) William Stacy Johnson, "The Doctrine of the Triune God Today," *Insights* 111(Fall, 1995) : 3-19.

34) Théodore de Régnon, *Études de théologie positive sur la Sainte Trinité Vols. I - II*(Paris : Victor Retaux et fils, 1892-1898).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시초와 계획과 효력으로서 함께 존재하시며 함께 참여하시기 때문에, 깔뱅에게는 하나님 셋이냐의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 된다.

둘째, 삼위일체 신학의 또 다른 쟁점들 중의 하나는 내재적 삼위일체(the immanent Trinity)와 경륜적 삼위일체(the economic Trinity)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전자는 삼위 간의 내적인 관계를 가리키고, 후자는 하나님이 세상과 맺으시는 외적인 관계를 가리킨다. 이 양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현대신학의 논의들은 대부분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와의 구별을 전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분리까지 나아가기도 하는 문제점을 보인다. 분리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구별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일치할 수 있느냐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된다. 현대신학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동방교회의 페리코레시스(perichoresis) 개념은 세 위격들이 상호내주 혹은 상호침투함으로써 하나 됨의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함축하고 있기에 오늘날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페리코레시스 개념이 내재적-경륜적 삼위일체 관계라는 쟁점과 섞이게 됨으로써,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게 된다. 즉, 내재적 삼위일체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서 상호내주 혹은 상호침투함으로써 하나 됨의 일치를 이를 수 있지만, 이러한 내재적 삼위일체에서의 일치가 어떻게 경륜적 삼위일체에서의 일치를 확보해 줄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점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런데 깔뱅의 삼위일체적 함께하심의 원리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깔뱅은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와의 구별을 전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 성경에 철저히 근거하여 경륜 속에서 드러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루되, 여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내적 관계와 대외적 관계를 포함하여 논의하고 있다. 깔뱅의 삼위일체적 함께하심의 원리는 이 자체 안에 세상을 향한 삼위일체적 열림의 원리를 이미 포함하

고 있다.

위의 두 가지만을 고려하더라도, 깔뱅의 삼위일체론이 오늘날의 삼위일체 신학의 부흥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지대할 것임을 확신하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